



## 결핵인물열전 ㉔

# 크리스마스 썰 운동의 선구자 문창모(文昌模)

글 김대규 (대한결핵협회 고문)

70년 동안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96세에 타계한 우리나라 의학계의 대원로 문창모, 그는 이 비인후과 의사였지만 1932년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썰 운동에 앞장서면서 결핵과 인연을 맺고 광복 후에는 중단되었던 썰을 부활시키고 국립결핵요양소장을 역임했으며 결핵협회 창립에 산파역을 했다.

### 한국 최초의 썰 모금에 앞장

문창모는 1907년 4월 23일 평안북도 선천군 남면 산성동 농가에서 문승훈(文勝勳)과 전(田)씨의 3남3녀 중 맏이로 출생했다. 1919년 상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해 오산중학교에 입학했으나 1921년 배재학당에 다시 입학하고 1924년 배재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1927년 그 학교를 졸업했다.

배재고보 재학생인 1926년에는 6.10만세 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1927년 3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31년 졸업했으며 바로 경성제국대학부속병원의 이비인후과 부수(副手)로 1년 근무하고는 다음 해 5월 셔우드 홀

(Sherwood Hall)이 원장으로 있던 해주 구세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1928년 홀이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나토름 해주구세요양원이 있었고 1932년 12월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썰이 셔우드 홀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그때 크리스마스 썰 7인 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문창모도 그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홀 원장을 도와 평양지역을 담당하여 썰 모금에 앞장섰다.

당시 평양에는 장로교 계통 학교가 많았는데, 감리교 신자인 그는 그 교장들을 만날 길이 없어서 고심하던중 오랜 미국 유학중 결핵으로 고생하다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전 귀국한 한경직(韓景職) 목사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다. 한 목사는 한국



관격)의 명으로 인천도립병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의 행정능력을 인정한 이 부장은 다시 1947년 5월 국내 유일의 국립마산결핵요양소장으로 그를 발령했다. 당시 요양소는 분규로 직원들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 분규에 휘말린 국립결핵요양소 정상화

그는 부임 하자마자 마산경찰서로 가서 서장을 만나고 검찰지청으로 가서 지청장을 만나 구속중인 직원들을 잘 지도할 테니 소장에게 맡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서약서 한 장 쓰고 직원 전원을 석방시켰다. 전 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기도를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하여 불쌍한 결핵환자를 위해 정성껏 봉사할 것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는 중환자실로 직접 밥상을 들고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식사를 권했다. 창고에는 좋은 미제 매트리스가 쌓여 있었는데도 직원들끼리 싸움하느라 환자들은 낡은 일제 매트리스를 그냥 깔고 불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는 옷옷을 벗어제치고 창고에서 매트리스를 한 장씩 지고 나와 입원실로 가서 바꾸어 주었다. 소장이 앞장서자 직원들도 뒤따랐다.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그의 꾸준한 노력으로 그곳은 마침내 쌍방이 화해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요양소가 되었다.

그는 재임중 의국과 수술실을 갖춘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직원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기도 했다. 1948년 10월 6일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선구자인 대구의대 고병간(高秉幹) 학장을 초빙해서 광복 후 처음으로 폐수술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반목과 무질서로 제 기능을 못 하던 유일한 국립요양소를 정상화한 공과 함께 그의 큰 업적이었다. 그러나 밀려오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정원 외에 복도에도 침대를 놓고 목욕탕까지 병실로 전용하면서도 많은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을 그는 가장 가슴 아파했다.

### 광복 후 쉴 재 발행

문창모는 1949년 4월 세브란스 병원장으로 부임하고도 마산에서 겪은 결핵의 심각성을 잊지 못했으며 망국병인 결핵퇴치를 위해서 일제시 해주에서 홀 원장을 도와 시작했던 크리스마스 쉴을 다시 발행하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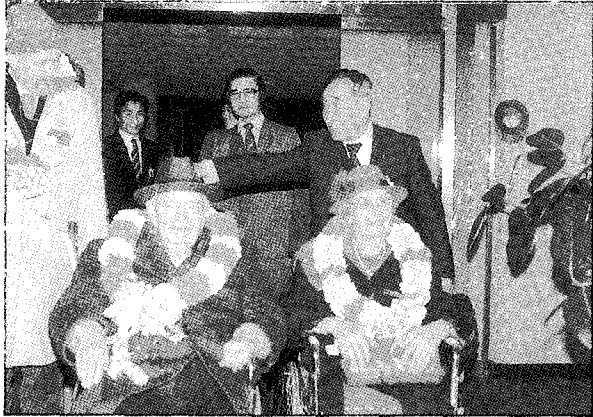
그러나 12월 10일에야 완성이 되어 널리 모금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인쇄비도 건지지 못했다. 그리고는 6.25전쟁 발발로 업무를 못 내다가 1952년 전세가 좀 안정되자 이번에는 한국 기독교사회 이름으로 다시 크리스마스 쉴을 발행했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았지만 광복 후 크리스마스 쉴을 개인의 노력으로 부활시킨 역사적 의미는 실로 크다.

그는 1953년 11월 6일 대한결핵협회의

창립에 참여하고 초대이사장에 선임되었으며, 그후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협회에서 발행되어 범국민적인 항결핵모금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원주를 제2의 고향으로

1956년 미국 인디애나 갈리교병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1957년 11월 국



1984년 11월 정든 한국을 방문한 서우드 홀 박사를 김포공항에서 맞이하는 문창모 박사 그 뒤가 필자.

제대학장에 취임했으며 1959년 11월 원주 기독교병원 초대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는 원주를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1964년 원주시 학생동에 70여 평의 부지를 마련, 진료실과 주택을 겸한 문이비인후과를 개원하여 37년간 새벽 6시부터 환자진료를 최우선의 일과로 삼고 정성을 쏟았다.

1976년부터 3년간 대한의학협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약했으며 1992년에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정주영(鄭周永)의 권유에 따라 국민당 전국구 1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4년간 활동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매일 새벽 전과 다름없이 환자진료를 한 다음 상경하여 국회로 나갔으며 국회가 끝나면 돌아가서 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해 야간진료를 했다. 그는 그렇게 70년간 의사로서 환자지상주의를 실

천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건강악화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죽는 날까지 환자를 보려고 했어, 그런데 손이 말을 안 들어, 손이...” 은퇴를 아쉬워하며 흐느끼는 노의사의 모습은 TV방송을 타고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그리고 1년 후인 2002년 3월 13일 조용히 96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했다. 장례는 원주시 사회장으로 엄수되었으며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건국포장, 국민훈장 모란장, 복지사대상, 인간상록수상을 받았으며 사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1928년 4월 5일 결혼 한 부인 이희주(李喜珠)는 70세 때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유족으로는 장녀 인숙(仁淑)과 장남 희원(熹元)이 있다. 卍